

福音新聞

福音新聞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連絡事務所・京都市右京区
 西院矢掛町20 京都教会内
 電話(075)311-5051
 発行人・李 仁 夏
 編集人・洪 東 根
 印刷所・儒 文 社
 電話(06)716-5046
 定 価 ・ 2 0 円

感激속의 5百余信徒

光復紀念礼拝挙行

最優秀賞獲得

제27회 배가 지 난 8월 13일 東大 오전 11시부	광복절 기념연회에 터 오후 5시까지 관서지방회 주최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阪市民會館에서	7·3남북공동성명이 발

辯論部門…… 김수남군
音樂部門…… 北部教會

표된 이래 조국 통일에의 희망과 기대속에서 기쁨과 감격은 이곳 광복절 기념연합예배 회장에 차고 넘쳤다.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관
서지방회 임직원회가 지
난 8월 30일 KCC에서

10月1日開講……信徒神学院

関西地方任職員会決議

회집하여	관서신도신학원	제
2학기	개원을	10월
1일	1일	신설
로	정하고	청년반을

관서신도신학원을 돕기
 해 정영희전도사가 본국서
 내일했고 三宮전도소를 돕

宣
教
活
動
에
總
力

金德化宣教師 近況

덕화선교사의 려운 소식에 선교사는 교회 주일 예배인도와 구역예배의 기도회를 가정마다 순회, 인도하는 이의 주일밤과 도회는 水島교회를 하는등 전도활동에 이 없다.	岡山교회 금주회관 하나를 얻어 러서 예배를 水島교회는	교회가 2층에 2시간 보고 있고	부임한 의하면 부임이래 금요일 각 인도하는 인도 여념	긴 알 김 회가 8월 를성경학교를 의 어린이가 밤에는 倉敷民團婦人会 름으로 민요교실과 한 가정생활 강습을 시하여 첫날 32명이 석했고 마지막 금요일에 는 53명이 참석하여 성화를 이루었다고 민단부인회의 고해서 월1회~2회 앞으로 모일 계획이 라고 하며 다른 사업으 로 어머니학교와 청소년
--	---	-------------------------------	--	--

생) 요리강습, 도덕과
교생활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덕화선교사는 지난 광
복절 경축대회(岡山民
本部)에서 인사와 경축
사를 통해 민단은 하나
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
하고 이 단결을 위해 ①
서로 불평과 비난을 삼
가고 공동체임의식을 가
지고 신의를 회복하자 ②
스스로 민단과 조국의 주
인이 되어 무책임한 언
동을 삼가자라고 말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년중 농사꾼에게는 가장 풍요한 때이다. 봄과 여름도 안 애써 가꾸고 일구어 따올린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다. 재일대한 기독교회총회가 일본인에서 탄생한 후 60주년이 지나고 70년을 향해 달리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가꾸고 배들이 복음의 씨가

▲계절은
 야호로 가을
 철에 접어들
 고 있다. 가
 을은 추수한
 는 계절로 1

教会와 伝道

힘이없고
몸이느릴

위하여 거출된 현금의 놀

民族性回復01 教会使命

西南地方会修養会盛況

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 〇

W C C 正義와 奉仕 委策定

의 三部門이다. 우리 總會의 機構와 비교하여 비슷한 것이 있다. 즉 伝道局 仕會局 教育局에 해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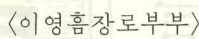
第二部 「正義와奉仕」委員
會 안에 네 小委員會가 있어 제공되어야 한다.
다. 國際關係、開發、人구제 활동은 爲하여서는 單純한 問題는 單純한 種差別과 싸우는 프로그램이다 李 대한 獻金額이라든 쉬이

WCC 새총무될 포터博士 力說

지난 8월 16日, WCC 會 總幹事로 視務해 왔으
 고 많은 사람의 기대와
 信託을 더 얻게 해 주었
 다. WCC 初代總務는 びつー
 토ー후트博士고 포터博士는
 今년 年末에 물러서게 되
 는 부레이크博士를 이어
 第三代總務가 되는 것이다
 前二者가 歐美出身인데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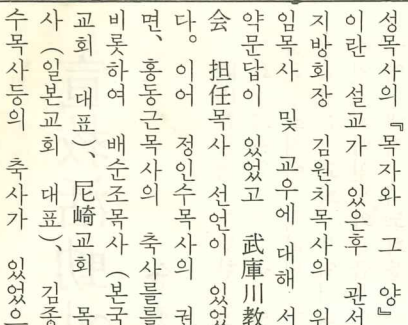
風事に感謝하는生活

와	橫浜 회에서	이번에	잔
제주도청	로장립을	받은	이영흠장
충무파에	로는	제주출신이지만	일
	직 서을	성동상업학교를	
	졸업한후	제주도	세무서
			없다.
	기업	그 후	18년간
	고철상등에		유
			성공하



武庫川教会서 举行

의식이	武庫川教會	홍영기목사우	성목사의	『목자와 그 양』
후3시	지난 6월 25일	오	이란 설교가	있을후
되었다.	동배방에서	거행	지방회장	김원지목사의
의 사회로	당회장 유종은목사	임목사	및 교우에	대해서
	김덕	약문답이	있었고	武庫川教會



女性指導者로
처음

橫濱教會 朴敬姬執事(女)는
命俊牧師 次女)는 8月 23日 日航便으로 나다
나다 브리튀쉬·코롬비아에 학에
교육學專攻次 留學길에
올랐다. 이는 카나기
長老教會女宣教會가 수년
부터 婦人指導者養成을
모하기 爲한 프로그램에
가 추진하여 된 것이다.

복음의 전진 (1장 12 ~ 17절) ④

⑫ 바울이 이 단락에 있
 어서 자기의 근황을 보고
 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
 獄에 매여 있기 때문에 福
 音 伝道에 크게 妨害가 되
 어 있지 않느냐고 切實보교
 회 신자들이 걱정하며 염
 려하지 않도록 자기의 당한
 일을 보고하면서 자기의
 投獄됨이 도리어 '부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 소문이 로마는市內에 퍼
 졌다고 본다.
 ⑬ 그것뿐만 아니라
 舍生活에서도 希望에 넘치
 바울의信仰과忍耐에 크게
 자극을 받아 이 때까지 부
 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들의
 다수가 더욱 확신을 가지고
 百倍의勇氣를 내어 전도하
 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
 게 되었다.

⑬ 바울이獄에대인것은 온전히그리스도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가르켜「그리스도·예수의因人」(엡三：一·몬一：一〇)이라고불렀다.「그리스도안

루살렘Bible」(舊約意圖)로 (with the right intention) 로번역되어있다. 즉하나님의善意에同意하여 도를 전하한다.

⑭ 착한뜻으로 그리스도

가치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in christ's cause)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또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등 번역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복음전파를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獄에 갇히게 하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온시위대안과기타모든사
람에게 널리알려졌다.「시
위대」(praitorion)는 여
러가지說이있으나 결국에
로마황제親衛隊의兵營으로
해석한다. 바울은 로마

한 시기와당과심에서 그
리스도를 전파하는자들은
순전치 못한 생각에서 바
울의獄中生活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

皇帝를侮하는親衛隊의 兵營內에軟禁되었고、交替로 바물을간수하러온兵士들에 福音을傳할수있었다。

인과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아니하니라

布施教会高等部学生

祖国南北統一について

去年の夏 キャンプにいった。そして国語（自国の）のときにぼくは驚くべき事実を知った。それは、日本と韓国は昔は、同じ国だった。韓国に、私達の国ときみたちの国をあわせ、一つの国にしよう。これは韓国を侵略しようとしたことなのだ。この話は歴史学の先生から聞いた。それから日本人はひとりひとり正直で親切だが、団体になるとうそをよくつく、反対に、韓国人は一人ひとり、うそをつくが団体になるとうそをつかないとか。さて話をもどして、祖国統一は世界に大きな印象をあたえた。今の今まではなれて、くらしていた親子もあえる。このことは、まるで自分のことのようにうれしい。なぜ

よく知らない。知っている。とすれば、日本が韓国を支配しようとしたというやうなことだけだ。かといって日本人全部が悪いのではない。韓国もひなんされてもしょうがないという点もあるだろう。ぼくは、そういうことを韓国人として自覚したい。北朝鮮は、金日成首相を、神のようにあがめたてているが、こういうことはあまり、このまじくないと思う。人間に絶対という言葉はない。神だけが、絶対と云う言葉がつかえるのだと思う。

ぼくは、統一したら、国名、国旗、首相はどうするのだろうか。これがもて、またわかれては、話にもならない。今まで別れて、くらしていた人々が一緒にくらせる。これが一番大切なこ

た。ぼくたちの国では今大さわぎだと思ふ。ぼくもあればんぼうだから、今一諸に祝いたい。しかしそれは無理な話だ。だから、ぼくは家でしづかに祈つた。

中学に入つてからは韓国名をつかつた。小学校ではけんかをする、朝鮮といわれ、苦しかつたが、中学になつてからは、けんかをして、もそのようなことは、いわれなかつた。これは、ぼくの思ふには、名前のせいだと思ふ。小学校では、韓国人をいっしょうけん命にかくしていたから、かえつて、へんなふうにいわたのだと思ふ。中学は本名で入つた。するとけんかをして、いわれなかつた。ぼくは本名をつかつてよかつたと思つた。ぼくはこの学校に深い親しみを感

国をよくからでたものだ。なぜ同じ民族同士殺し合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だろう。南北戦争いらい両側は、うたがい深くなつた。しかし今ここに、新聞にもでたように、不信を解き、統一しようとしている。本当にうれしい。いままでわかれわかれでくらしてきた兄弟、親子、たくさんの人々を不幸にしてはだめだと思ふ。話がかわるけれど、ぼくは教会にいっている。ここでは差別などない。もつともあたりまえだ。道理の前では人は平等というように、ここでは神の前では、皆、平等だ。

（川崎教会　李錦容執事　長男）

（編集者註）この作文は学校に提出したものである。

青年指導者研修會

청년지도자연구회

9월 7일부터 9일까지

Y M C A 관서지방회

YMCA 관서지방회

이치권 목사(교회청년에게 바

라는 것) 에 의하였고 관서지방

青年會運動方向摸索

청년지도자연수회가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Y M C A 六甲연수센터에서 서지방연합청년회주최로 개되었다.

지도강사는 관서지방회 청년부장 윤종은목사(성서연구자세), 관서지방회 교육부장 홍동근목사(기독교윤리), 神戶教会 김경찬목사(성가대의 자세), 재일한국 Y M C A 관서지방회 책임자 이치권목사(교회청년에게 바라는것) 세제였고 관서지방 연합청년회 부회장인 이태문군의 청년회의 자세라 발제강연이 있었다.

동연수회는 분단도의, 조합도의 등을 거쳐 평가와 앞으로 청년회 방향등을 모색하여 성과가 컸다.

堺教会高等部二年 鄭榮順

私達在日本國人は、これから一体どの様に生きて行くのでしょうか？

祖国の統一は、だんだんと近づきつつあり、日本で生まれ、日本で育った私達は、どの様に生きていけば良いのでしょうか。私達が日本の地で次の世代を生み出し、また在日本國人として色々な制限を受けながら生きて行くのでしょうか。

祖国統一が一層私達に近き物となった今、もう一度改めて、私達は真険に考えなければならぬ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홍영기 목사 著

聖地를 찾아서

=聖地를 성서적, 역사적으로 고찰한 聖地の 생생한 역사자료=

武庫川教会 牧師 洪永其